

# 디미트리스 파파이오아누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 분석

- 「어느 곳에도 없는」, 「원시적 문제」, 「위대한 조련사」를 중심으로 -

안현민\* · 조은숙\*\*

I. 서론	IV. 결론
II. 해체주의에 대한 담론	참고문헌
III. 파파이오아누의 해체주의적 특성을 지닌 작품 분석	영문초록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포스트모더니즘은 현시대의 예술의 특성들과 가장 근접해있으며 지나온 예술사조들 중 예술을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 특히 킨뎀포러리 무용에서는 예술 작품의 구조가 해체되고 다양화 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한 특성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해체주의의 특성은 최근의 무용작품들 중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다.

해체주의(Deconstructivism)는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주요한 담론으로 제기된다.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에 근간을 두고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 등장한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언어의 철학적 사고를 모두 구조로 설명하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 구조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 주체와 대상이라는 이원론적인 이론을 타파하고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제기하며 후기구조주의(Poststructuralism)가 등장하게 되었다. 후기구조주의는 구조주의에서 주로 주장했던 구조를 해체하면서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이 곧 해체주의를 탄생하게 했다. 해체주의를 제기한 인물인 프랑스의 비평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는 1966년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그의 논문을 통해 새로운 철학적 개념을 발표했다. 그는 서양의 형이상학에서 주로 철학적 이념으로 삼았던 이분법의 방식을 문제로 삼으며 해체를 통해 이전과는 다른 개념을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해체’는 서구의 형이상학의 전통적인 방법을 해체하고 부정하는 개념이었다. 데리다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 주목 받던 주체와 객체의 이

\* 주저자, 중앙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eschod@hanmail.net

분법 사이의 틈과 공간을 인식하며 완전히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데리다는 해체주의 이론을 텍스트 간의 상호교류를 의미하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부재를 채우지만 곧 부재를 강조하는 대리보충(Supplément), 공간의 틈과 시간의 지연을 의미하는 차연(Différance), 차연으로 인한 흔적(Trace), 흔적이 남긴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인 산중(dissemination) 등으로 전개하였다. 해체주의의 대표적인 안무가로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디미트리스 파파이오아누(Dimitris Papaioannou)는 무용이 아닌 다른 예술분야에서 창작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무대예술을 작업하기 전, 미술과 만화작업을 하면서 그의 예술성을 인정받았고 그 영향으로 안무를 하면서 무대세트, 소품, 조명, 의상 등의 다양한 시각을 함께 아우르는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그는 신체의 부위들을 해체하여 새로운 형상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신체의 미를 돋보이게 하는 안무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대표작품으로는 「순간의 침묵 *A Moment's Silence*」(1995), 「출생지 *Birthplace*」(2004), 「2」(2006), 「어느 곳에도 없는 *Nowhere*」(2009), 「원시적 문제 *Primal Matter*」(2012), 「고요한 삶 *Still Life*」(2014), 「위대한 조련사 *The Great Tamer*」(2017)등을 꼽을 수 있고, 이들 작품 대부분에서 해체주의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의 작품 중 「위대한 조련사」는 해체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는 이 작품에서 “해체, 팽창, 흡수, 배제를 통해 작품의 무용수들이 그들만의 시각으로 균형과 작업을 찾아가도록 시도했다”<sup>1)</sup>고 작품의도를 설명하였다.

평론가 안드레이(Andrey Lemarchand)는 “파파이오아누가 만들어낸 이미지는 엄청나게 충격적이다. 피나바우쉬보다 사실적이고 감정선에 따른 이미지를 구축한다. 하지만 신체를 신화적인 요소에 따라 재형상하고 해체하여 마치 환상을 실제로 보는 것 처럼 더 교묘하고 정교하게 형상화 한다.”라고 평함으로써 파파이오아누의 해체주의적 특징을 잘 설명하였다.<sup>2)</sup> 파파이오아누에 대한 선행 논문으로는 약 4편<sup>3)</sup>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다른 안무가들의 작품과 함께 비교하거나 신체를 활용하는 시각적 특징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그의 작품을 해체주의의 관점으로 분석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디미트리스 파파이오아누의 대표 작품들을 선정하여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해체주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작품들 중 활발히 창작활동을 하였던 2000년대 이후의 작품 3개를 선정하고자 한다. 「어느 곳에도 없는」, 「원시적 문제」, 「위대한 조련사」를 자크 데리다가 제시한 해체주의의 특성을 바탕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1) Teatro Municipal do Porto Rivoli Campo Alegre 홈페이지, <<https://www.teatromunicipaldoporto.pt/en/programa/dimitris-papaioannou-gr-the-great-tamer/>, 2020. 5. 10.>.

2) Andrey Lemarchand(2019.02.21.), 'New Piece I: Since She', *Tanztheater Wuppertal Pinal Bausch-Sadler's Wells*, The Strand Magazine, <<https://www.thestrandmagazine.com/single-post/2019/02/20/New-Piece-I-Since-She-Papaioannou-Tanztheater-Wuppertal---Sadlers-Wells>, 2020. 5. 10.>.

3) 이지원(2014), 컨템포러리 댄스에 나타난 「메데아 Medea」의 재현과 표현,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2, pp.155-176; 최영현(2019), 디미트리스 파파이오아누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신체 조형성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76, pp.1-14; 정수진(2019), 드미트리 파파이오아누의 작품 「2」에 나타난 루키즘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지희(2020), 현대 춤의 기호학적 특성 연구: 퍼스기호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II. 해체주의에 대한 담론

해체주의는 구조주의의 한계를 비판하며 탄생한 담론으로 해체주의의 근간은 구조주의에서부터 살  
펴볼 수 있다. 20세기에 대두되었던 구조주의 담론은 언어학에서 시작되어 인류학, 문학, 예술 등 다양  
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다. 구조주의는 언어와 기호 사이의 법칙과 구조를 통한 사유로 인간의 모든 행동  
을 구조와 법칙으로 나누어 밝히려 하였다. 그러나 조직화되고 규범화된 구조주의의 사상의 한계로  
인해 후기구조주의가 대두하게 되었고 후기구조주의는 구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인간중심적인 사고  
를 지향하였다. 후기구조주의에 들어서면서 구조주의에서 강조하였던 구조를 파괴하며 다양한 담론이  
등장하였고 그 중 해체론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구조주의에서 주요하게 드러난 주체와 객체의 사유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주의가 등장하기 전까  
지 주로 철학적 사고에서 제기되었던 이분법적 방식이었다. 프랑스 출신의 비평가 자크 데리다는 포스  
트모더니즘이 등장한 1960-70년대에 주체와 객체 사이 틈과 다양성에 관심을 가지며 해체주의를 언급  
했다. 그는 1966년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열린 학회에서 『Structure, Sign, Play in the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를 발표함으로써 해체주의 이론을 알리게 되었다. 그가 주장하는 해  
체주의는 전통적인 형이상학에서 주로 거론되는 주체와 객체가 기반인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며 주체  
와 객체로 인해 보이지 않았던 틈과 공간성을 인식하여 이원론을 파괴하고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는 경직되고 고정된 서구의 이성중심주의에 종말을 선포하고 새로운 인식의 장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텍스트의 이론 및 분석의 존재방식으로 해체는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모든 것을 뒤집어엎고 기존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 해체주의는 전통적인 방식의  
글쓰기를 통해 행해지는 소통행위나 인식과 관련된 판단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  
었고 존재하는 듯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결국 흔적만 남게 되는 것에 대해 집중했다.<sup>4)</sup>

이와 같이 데리다는 형이상학의 비판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사유를 통해 해체주의 이론을 정  
립하였다. 데리다의 해체주의에 기반이 되는 특징들을 살펴보면 상호텍스트성, 대리보충, 차연, 흔적,  
산중 등이 있다. 해체주의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각 특징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논의해보고자 한다.

데리다의 해체는 텍스트에서 시작되었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특징으로 상호텍스트성  
(Intertextuality)과 대리보충(Supplément)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데리다가 바라본 텍스트는 완전하  
지 않고 부족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사이에 행간을 만들어내게 된다고 보았다. 이중건 교수는  
데리다가 언급한 해체주의는 텍스트의 구조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구조 안에 서식하고 있  
는 것이라고 설명했다.<sup>5)</sup> 이처럼 데리다는 텍스트를 통해 그 사이의 공간을 발견하고 텍스트들 간의 차  
이를 성립하여 상호교차하며 하나의 텍스트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이렇게 텍스트  
들 간의 상호교차를 갖는 것은 대리보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리보충은 단어의 뜻 그대로 대리하여 채운다는 의미를 갖는다. 채운다는 것은 비워있다는 것을 동  
시에 의미하기도 하며 데리다는 대리보충을 통해 현전보다 부재를 강조하며 결여를 통해 채워지는 것을

4) 임기택(2014), 『해체주의와 건축이론 5』(서울: 시공문화사), pp.3-4.

5) 이중건(1993), 『해체주의 건축의 해체』(서울: 도서출판 발인), p.82.

이야기하고 있다. 즉, 대리보충은 텍스트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곳에 삽입이 되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붙여야하는 잉여 혹은 과잉이라고 칭할 수 있고 또는 충실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sup>6)</sup> 상호텍스트성과 대리보충은 문학 뿐 아니라 건축,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무용은 순간적인 예술로 끊임없는 시간성과 공간성의 만남이다. 움직임에서 시간과 공간의 요소들은 내부와 외부, 수평과 수직, 연속과 불연속 등으로 계속해서 뒤섞여있다. 이러한 혼합들 사이에서 틈과 간격이 생기고 그러한 틈에서 만나기도 한다.<sup>7)</sup> 또한, 공간과 시간의 요소들 사이 틈이 비워지고 채워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즉, 무용은 상호텍스트와 대리보충의 연속성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호텍스트성의 또 다른 면으로, 컨템포러리 댄스에서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해체하기 위하여 무용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와의 교류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무용과 미술전시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텍스트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 외 건축, 음악, 연기 등 다양한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 이를 곧 탈장르화, 탈중심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무용의 움직임의 경계를 다른 텍스트를 통해 허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컨템포러리 댄스에서는 다른 텍스트와의 결합과 더불어 기존 텍스트를 해체하는 경향도 볼 수 있다. 특히, 인간 본연의 신체에 대해 여성과 남성으로 나눈 젠더적 고정관념을 깨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거나 신체 부위들을 분절시켜 확장된 시각의 신체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신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파편화시키고 해체한다.

앞서 언급하였던 공간성과 시간성에서 드러나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에서 빼놓을 없는 특성으로 차연(Différance)과 흔적(Trace)이 있다. 차연은 공간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다르다(differ)와 일시적인 분리를 의미하는 미루다(defer)를 합쳐 만들어져 시공간적으로 분리되고 미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유럽 철학의 흐름을 분석한 철학자 이광래는 차연을 “기호 체계 내에서 간격을 두고 다른 것과 구분되는 차이에서 나오는 공간개념인 동시에 기호가 언제나 끝없는 존재의 지연을 강요하는 시간적 개념”이라고 설명하였다.<sup>8)</sup> 데리다는 차연을 통해 어떠한 체계 속에 결과를 절대적 타자의 흔적으로 강조했다. Différance는 데리다가 만들어낸 신조어로 Différence와 발음이 같아 음성적으로 같은 소리가 나며 텍스트로만 ‘a’와 ‘e’의 차이를 인지할 수 있다. 이 단어로 그는 알파벳 하나의 차이가 있지만 발음상 같다는 것을 언급하며 시공간개념의 간격을 강조했다.

데리다에게 흔적은 존재하는 것들 사이에 현존하면서도 부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존재한다는 것은 곧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사라지면 흔적을 남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흔적의 의미를 피종호는 텍스트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문자소 또는 흔적 찾기로서의 글쓰기는 추상적이지만 현상학적인 언어질서라 할 수 있다. 흔적의 체계사슬이며 의미의 흐트림을 통한 의미생산인 텍스트는 모방과 인용 등 다른 텍스트의 반복intéraction과 변형으로 이루어진다. 텍스트의 모든 요소들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다른 요소들의 흔적인 문자의 흔적인 것이다.”<sup>9)</sup> 따라서 흔적은 차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존재의 결과에서 흔적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결

6) 임기택(2014), p.32.

7) 공혜영(2007), 컨템포러리 무용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연구—Sasha Waltz와 William Forsythe의 작품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51.

8) 이광래(2007), 『해체주의와 그 이후』(서울: 열린책들), p.116.

9) 피종호(2005), 『해체미학 니체에서 후기구조주의까지』(서울: 도서출판 뿌리와이파리), p.230.

정되기 이전에 이미 차이를 낳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에서 시작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차원과 흔적은 움직임의 양상에서 크게 돋보인다. 무용수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더라도 현 움직임에 전 움직임을 공간과 시간의 흔적은 남는다. 차원에서 데리다가 주장한 시간의 공간화와 공간의 시간화는 무용수가 신체를 분절하며 움직일 때 나타난다. 신체의 분절로 인해 생기는 공간의 간격과 시간의 흔적으로 연속적으로 움직임을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볼 때, 차원의 공간적 층위인 기억, 연기, 유보, 보전, 유예, 우회 등의 개념과 차원의 공간적 층위인 차이, 거리, 행간, 사이, 자간, 틈 등의 개념은 서로 다르면서도 동시에 시간이 공간으로 공간이 시간으로 변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지연도 차이이고, 간격도 차이이기 때문이다”<sup>10)</sup>

지금까지 언급한 해체주의의 특성인 상호텍스트성, 대리보충, 차연, 흔적을 통해 무용작품에서의 의미가 확장되고 넓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산중 (dissemination)이라고 한다. 산중은 해체주의를 통해 생성된 새로운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가는 작업이다. 따라서 산중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으며 흔적이 남긴 의미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그 의미를 확장시켜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 작품에서의 산중은 해체주의가 갖는 의미들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산중은 앞서 상호텍스트성, 대리보충, 차연, 흔적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앞선 특성들 보다 조금 더 폭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히 컨템포러리 댄스의 작품에서 해체주의가 갖는 의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중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장에서는 디미트리스 파파이오아누의 작품을 해체론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 III. 파파이오아누의 해체주의적 특성을 지닌 작품 분석

그리스에서 태어난 디미트리스 파파이오아누(Dimitris Papaioannou)는 무대예술을 창작하기 전 그는 미술을 전공하여 미술과 더불어 만화가로도 활동하였고, 현재는 그 영향으로 인해 무대세트, 소품, 조명 등 다양한 무대 예술에 관련된 창작분야를 오가며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에릭 호킨스(Erik Hawkins)의 테크닉으로 현대무용을 접하게 되었고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활동을 이어가다가 1986년에 이다포스 무용단(Edafos Dance Theater)을 창단하였다. 1989년에 그는 로버트 윌슨(Robert Wilson)과 <The Black Rider : The Casting of the Magic Bullets>을 함께 작업하였고, 이 작업은 그의 예술철학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이다포스 무용단에서 2002년까지 17년간 그는 다양한 장르와 함께 활동을 이어갔고 그 이후 그의 본인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의 예술 감독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그 후 「2」(2006), 「메데아2」(2008), 「어느 곳에도 없는」(2009), 「고요한 삶」(2014), 「위대한 조련사」(2017) 등의 작품들을 창작하며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파파이오아누의 대부분에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해체주의는 신체의 부위를 분절하거나 파편화시키고 무대의 세트나 소품을 이용하여 공간을 나누고 비일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형식을 해체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무용의 요소인 신체, 공간, 형식 등과 잘 결합되어 있는

10) 공혜영(2007), p.59.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은 파파이오아누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해체주의 특성을 작품별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 1. 「어느 곳에도 없는」

파파이오아누의 「어느 곳에도 없는」에서 해체주의는 신체의 분절을 통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팔만 사용하여 무용수의 옷을 벗기는데 그 과정이 해체주의의 차연과 흔적의 연속성이 돋보인다. 가장자리에서 시작한 팔들이 시간의 흔적으로 하나의 선을 이루어낸다. 여러 무용수들의 팔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곡선은 공간의 틈을 만들어주며 무용수의 옷을 벗겨낸다. 무용수들의 팔들에 의해 벗겨져 남성무용수와 여성무용수 모두 나체가 되어 남성무용수가 여성무용수를 안고 퇴장한다. 〈그림 1〉은 「어느 곳에도 없는」의 대표적인 장면으로 한 사람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신체의 한 부분만을 이용하여 움직이고 있다. 이 작품을 다른 각도로 분석한 연구를 보면 해체주의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중첩된 손은 어떠한 의도나 목적 없이 우연히 해체됐다가 접촉하는 정체불명의 곤충 집단처럼 보이기도 한다. ...단지 끊임없이 변이와 결합의 과정을 통해 기존의 개념과 실재를 해체하고, 새로운 현실의 유형을 도출해내고 있다.”<sup>11)</sup> 이 과정은 이광래가 설명하는 텍스트 사이의 공간성과 끝없는 시간의 지연의 특성을 가진 차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sup>12)</sup> 또, 이 장면에서는 특정한 성별의 무용수가 아닌 남성과 여성을 모두 보여줌으로써 젠더적 신체 아름다움 보다는 인간 본연의 신체를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전통적 형이상학에서 강조한 이분법적 사고를 해체하여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원론이 아닌 다원론의 시각으로 접근한 해체주의의 상호텍스트성이 나타나고 있다. 파파이오아누의 신체를 이용한 젠더의 해체는 책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드미트리스 파파이오아누(Dimitris Papaioannou), 마리아 골지아(Maria Gorgia), 레니오 카클리아(Lenio Kaklea), 에미 코르피아(Emi Korfia) 등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 안무가들이 중성적이고 기괴하고 심지어 비인간적인 움직임으로 성을 나타내지 않는 모호한 의상을 입히거나, 나체를 보여주거나, 추상적인 신체의 표현을 통해 젠더의 해체를 시도한다.<sup>13)</sup>



〈그림 1〉 어느 곳에도 없는<sup>14)</sup>

11) 최영현(2019), 디미트리스 파파이오아누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신체 조형성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76, pp.1-14.

12) 이광래(2007), p.116.

13) Janet Sturman(2019), *The Sag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usic and Culture*(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p.1038.

14) Dimitris Papaioannou, 「Nowhere」(2009), Greek National Theatre, 2009.10.14., Marilena Stafylidou.

「어느 곳에도 없는」에서 신체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체주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공간이다. 그리스 국립극장에서 초연한 이 작품은 초연 당시 작품에 맞게 기존의 극장 공간들을 재구성시켰다. 〈그림 2〉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작품은 무대 위에서 철재들이 내려와 무대의 일부분이 되어 무대 공간을 해체하고 무대 바닥이 나누어지면서 무대 공간 전체가 분리가 된다. 또한, 무대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무용수들이 등장하는 등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 공간 해체가 시도된다. 이러한 공간의 해체는 해체주의의 상호텍스트성과 흔적이 드러난다. 움직임의 텍스트와 무대세트의 텍스트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텍스트가 나타나고 그 과정은 곧 흔적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종건 교수는 “데리다의 인식체계 안에서, 있는 것은 모두 ‘차연’ 속으로 용해되고 오직 ‘흔적’만 있을 뿐이다.”<sup>15)</sup> 라고 언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무대세트로 인해 공간이 해체되면서 그 속의 차연으로 인한 흔적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어느 곳에도 없는<sup>16)</sup>

또 다른 장면에서 무대의 바닥이 움직이면서 바닥에 놓여 있던 큰 박스질감의 소품들이 뜰어져 올라오고 무용수들이 소품을 하나씩 들고 끌고 걸어간다. 바닥의 일부였던 것이 소품이 되는 과정을 통해 틀이 깨지면서 형식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용수들은 무대 위에서 내려왔던 철재들을 이용해 올라타고 떨어지고 신체의 일부분들을 나누어 사용하며 비일상적인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해체에서는 해체주의의 상호텍스트성과 대리보충의 특성이 보인다. 움직임에 다른 텍스트인 소품을 이용해 상호 작용되는 과정을 통한 상호텍스트성과 소품으로 생긴 빈 공간, 반대로 채워지는 공간을 통해 대리보충의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 2. 「원시적 문제」

「원시적 문제」는 파파이오아누가 직접 출연한 듀엣 작품으로 나체의 남성과 검은색 수트를 입은 파파이오아누가 대비되며 신체의 해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전라를 한 남성의 한쪽 종아리는 접혀있어 보이지 않고 파파이오아누의 종아리가 보이며 두 무용수가 떨어져 있어도 해체된 신체를 보여주며 그 분리된 신체가 합쳐지며 결합을 표현하기도 한다. 두 사람이 하나의 몸처럼 결합되어 힘겹게 걸어 나가 기괴한 동작에 생동감을 더해준다. 이 과정에서 움직임과 의상과 같은 시각적 요소를 통해 신체의 해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파파이오아누와 함께 출연한 남자 무용수는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수동적인 소품과 같다. 나체를 한 무용수의 다리와 파파이오아누가 옷을 걸어낸 다리의 일부분이 마치 한 몸처럼 보

15) 이종건(1993), p.99.

16) Dimitiris Papaioannou, 「Nowhere」(2009), Greek National Theatre, 2009.10.14., Marilena Stafylidou.

여 신체 부위의 해체를 이루고 해체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마치 자신의 다리가 아닌 것처럼 강한 질감으로 움직임을 표현한다. 그가 이러한 신체 해체를 이루는 과정에는 차연과 흔적 그리고 상호텍스트성도 함께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신체를 나누어 분리하여 공간의 사이를 만들어내고 그 사이 시간의 흔적으로 마치 다른 두 사람의 몸이 한 사람의 몸처럼 해체와 결합이 된 것이다. 또한, 다른 몸인 두 텍스트간의 상호결합이 이루어져 신체가 파편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철학자 휴 J. 실버만은 차연은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차이라고 설명하였는데<sup>17)</sup> 신체 부위들의 다양성이 만들어낸 공간적 차이로 인한 이미지를 <그림 3>에서 볼 수 있다.



<그림 3> 원시적 문제<sup>18)</sup>

두 사람은 소품을 사용하면서 공간과 형식의 해체도 함께 보인다. 파파이오아누는 합판에 남자 무용수의 다리, 팔, 얼굴을 넣어 신체의 해체를 소품과 함께 시도한다. 그는 마치 무용수의 몸을 오브제처럼 보여주며 풍자성을 띄기도 한다. 또한, 합판과 양동이를 사용하여 두 사람의 신체부위를 숨겨 공간을 해체하면서 비일상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며 형식의 해체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두 합판이지만 합판을 이용해 완전한 공간의 해체도 이루어낸다. 두 무용수는 각자의 합판에 수직과 수평을 이용해 마치 공중부양을 하는 듯 한 이미지를 도출해내고 합판하나로 달라지는 그들의 움직임의 질감이 돋보인다. 미술을 전공한 안무가답게 그는 조명의 활용을 통해 해체를 표현하기도 한다. 전체 조명을 끄고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조명으로 무용수를 비추어주며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고 무용수의 신체를 강조한다. 더불어, 신체 뿐 아니라 소품을 이용한 공간과 형식의 해체에서도 대리보충과 흔적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파파이오아누는 합판을 이용해 비워진 공간을 채우고 채움을 통해 공간의 새로운 시각을 도출해낸다. 이 새로운 시각은 부재의 공간으로 인해 초현실적인 이미지가 생성이 되며 대리보충의 부재에 대한 강조가 살아있는 해체론적 소품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흔적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자면, 피종호 교수는 흔적은 텍스트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에 흔적인 문자들의 흔적이라고 언급하였는데<sup>19)</sup> 소품과 신체를 함께 움직이며 그 사이의 간격과 그 흔적으로 생긴 이미지들은 해체주의의 특징인 흔적의 양상이 잘 나타난다.

17) 휴 J. 실버만(1993), 『텍스트성·철학·예술-해석학과 해체주의 사이』, 윤병호(역)(서울: 소명출판, 2009), p.45.

18) Dimitris Papaioannou, 『Primal Matter』(2012), Athens Festival, 2012.6.23., Nikos Nikolopoulos.

19) 피종호(2005), p.230.

### 3. 「위대한 조련사」

「위대한 조련사」에는 전라를 한 무용수들과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함께 신체의 해체를 이루어나간다. 〈그림 4〉에서 보이는 것처럼 검은색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의 신체부위와 맨살의 신체부위가 합쳐져서 누구의 신체부위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몸의 형상들이 나타난다. 그는 일정한 신체의 체계가 아닌 뒤섞인 형태를 통해 새로운 신체의 미를 나타낸다. 또한, 파파이오아누는 해체와 결합을 통해 신체 본연의 개념이 사라지고 영겨진 신체 모습으로 신체 결합의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낸다.<sup>20)</sup> 그는 무용수들 간의 신체 해체 뿐 아니라 소품을 이용하여 몸을 분절하고 무대세트 아래에 숨어 신체의 특정 부위들만 드러내며 기괴한 몸의 해체를 실현한다.



〈그림 4〉 위대한 조련사<sup>21)</sup>

본 작품에서는 무대 위에 곡선의 판들을 높게 깔아 이상 세계와 같은 느낌을 주는 바닥의 선을 사용한다. 그는 나무재질의 판들을 조합해 무대세트와 소품으로 사용한다. 무대 전체를 뒤덮고 있던 우드 판들이 때로는 바닥에서 해체되어 파편화되고 그것들을 무용수들이 들고 움직이며 공간과 형식의 해체가 이루어진다. 작품의 소품인 갈대나무의 줄기들은 무용수들이 던져 바닥에 꽂힌다. 이 줄기들이 꽂힌 바닥들이 갈라져 전라의 무용수들이 기괴한 동작으로 등장한다. 이 기괴함으로 인해 소품, 세트, 무용수의 신체가 모두 해체되어 보이지만 하나의 새로운 그림이 형성된다. 석고로 의상을 만들어 입은 무용수가 다른 무용수에게 다가가자 두 사람의 움직임으로 석고들이 깨져 파편화된다. 파파이오아누는 무대를 하나의 미술작품과 같이 바라보며 무대, 소품, 신체까지 모두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기 때문에 모든 요소들을 해체하여 하나의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낸다. 이러한 점은 텍스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해체주의의 상호텍스트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데리다가 주장하는 하나의 텍스트의 존재가 아닌 다른 텍스트와의 연쇄작용으로 인한 변형된 텍스트라는 특징과 부합하는 이미지이다.

파파이오아누는 “이 무용 작품은 많은 감정들과 함께 해체의 과정을 묘사하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굉장히 심플하며 우리의 일상과 가까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sup>22)</sup>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감정의 해체와 일상의 해체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해체

20) 최영현(2019), p.9.

21) Dimitris Papaioannou, 「The Great Tamer」(2017), Onassis Cultural Center, 2017.5.24., Julain Mommert.

22) Marta(2018.02.21.), *Porto March Events You'll Wish You Knew About*, <<https://oportoblog.com/things-to-do-in-porto/porto-march-events-youll-wish-you-knew-about/>, 2020. 5. 10.>.

주의는 무대세트, 신체, 소품 등 모든 것들을 해체하여 초현실적인 그림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면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 “초현실적인 무대를 위해 왜곡되고 슬로우 다운된 슈트 라우스 왈츠의 느낌과 베케트의 기괴하고 이상한 분위기가 필요했다. 내가 이야기를 가장 잘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언가를 꿈처럼 창조하는 것이기에 초현실주의를 사랑한다.”<sup>23)</sup> 그는 여러 명의 무용수들의 신체부위와 소품과 바닥을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상호텍스트성, 차연, 흔적의 해체주의적 요소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움직임의 텍스트가 기반이 되는 무용에서 미술의 이미지적인 텍스트를 가져와 상호작용하여 기본 텍스트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것의 텍스트를 창출해낸다. 또, 무용수들의 움직임에서 갖는 시간의 흔적과 그 사이에 공간의 틈이 생겨 기괴한 움직임이 표현된다. 철학자 이광래는 차연을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의미가 스스로 분할되기도 하고 지연되고 연기된다는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sup>24)</sup> 이 작품에서 무용수들의 움직임과 소품의 해체와 결합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이러한 시공간의 동적 의미를 포함한 차연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파파이오아누는 인터뷰에서 그가 만들어낸 이미지의 원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위대한 ...’에서 그런 초현실적인 이미지들은 곧잘 분절된 인체를 활용한 움직임을 통해 구현된다.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의 하이라이트가 호수에서 떠오른 거대한 가면 모양 조각상이 쪼개지며 중심의 토르소를 드러낸 순간이었던 것처럼, 그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것은 ‘그리스적 아이덴티티’다. 그는 ‘내 그리스적 아이덴티티는 고대 그리스 미술의 시그니처인 대리석과 누드, 분절된 인체상으로 인해 형성됐다’면서 ‘그리스적 아이덴티티의 본질은 정신성과 섹슈얼리티의 공존’이라고 했다.<sup>25)</sup>

「위대한 조련사」에서 나타난 무대세트와 소품의 활용은 해체주의적 면모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무대 위에 깔려진 곡선의 판들은 이상적인 세계를 상상하게 하며 무대를 덮고 있던 우드 판들이 해체되는 모습은 기괴한 움직임만큼이나 초현실적이다. 이러한 신체, 세트, 소품의 모든 활용으로 나타나는 다의적인 해석은 해체주의의 산종과 부합한다. 산종은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흔적이 남긴 의미들을 다양하게 해석함으로써 그의 작품에서 신체, 세트, 소품 등의 해체가 남긴 이미지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파파이오아누는 위의 세 작품에서 무용수 신체의 해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는 분절된 움직임과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해체된 신체 부위의 재조합이 텍스트들의 상호교류와 대리보충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텍스트를 구축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소품과 무대세트도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해체요소다. 작품의 주제는 다르지만 모든 작품들이 소품과 세트를 파편화시키기도 하고 신체의 분절과 함께 이용하여 기괴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또한, 그는 공간의 틈과 시간의 흔적에 따른 차연의 과정을 통해 움직임이 연속되며 이미지를 창작해나간다. 세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요소의 해체로 새로운 텍스트를 통한 다의적 해석을 확장하며 산종의 과정을 거쳐 작품의 해석과 의미가 풍성해질 수 있다.

23) 유주현 (2017.9.24.), “아테네 개막식, 서울 올림픽 ‘굴렁쇠’에서 배웠죠”, 『중앙일보』, 550호 8면.

24) 이광래, 심명숙(2009), 『미술의 종말과 엔드게임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포스트해체주의까지』(서울: 미술문화), p.278.

25) 유주현 (2017.9.24.), 550호 8면.

## IV. 결론

본 연구는 디미트리스 파파이오아누의 작품의 해체주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해체주의의 개념과 특징, 해체주의의 대표 비평가 데리다의 이론을 살펴보고 파파이오아누의 2000년대 대표작품 「어느 곳에도 없는」, 「원시적 문제」, 「위대한 조련사」를 해체주의 특성인 상호텍스트성, 대리보충, 차연, 흔적, 산중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어느 곳에도 없는」에서는 신체의 해체를 통해 차연과 흔적이 나타나며 젠더적 해체의 이미지를 선보이며 상호텍스트성의 특성이 돋보인다. 파파이오아누는 여러 무용수들의 팔들만 연결된 이미지를 통해 한 무용수의 의상을 벗기기도 하고 분절된 움직임으로 시공간적 간격을 두고 해체를 선보인다. 또, 소품을 이용해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흔적을 만들어 텍스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텍스트를 구성한다. 「원시적 문제」에서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분절을 이용하여 차연, 흔적 그리고 상호텍스트성이 나타난다. 그는 전라를 한 무용수와 검은색 수트를 입은 무용수의 극명한 시각적 대비를 통해 신체를 이용한 해체를 보여준다. 그 해체된 이미지에서는 움직임들 사이에 공간적 간격과 시간적 지연이 드러나고 그 흔적으로 인해 해체된 신체가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용수들은 소품을 이용해 공간을 나누고 비일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대리보충과 흔적의 특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조련사」에서는 신체의 부위들을 파편화하여 기괴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 이미지는 텍스트들 간의 상호교류로 인한 형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파파이오아누는 세트, 소품, 신체를 모두 활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텍스트를 형상화 한다. 이러한 새로운 형상은 차연과 흔적을 통해 만들어지며 산중의 과정을 통해 다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세 작품 모두 신체 부위들을 파편화시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해내어 상호텍스트성과 대리보충의 특성이 드러난다. 더불어, 무대세트와 소품을 이용해 공간과 형식을 해체하여 공간성과 시간성의 간격이 보여지며 차연과 흔적이 나타난다. 이러한 해체에 의한 이미지들을 통해 의미를 확장시켜나가는 산중의 과정을 거쳐 확장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디미트리스 파파이오아누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들을 살펴보고, 각 작품들 모두 데리다의 해체주의 이론적 특성이 잘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후 연구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해체주의 안무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컨템포러리 댄스에서의 해체주의를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제안해본다.

■ 참고문헌

- 이광래(2007). 『해체주의와 그 이후』. 서울: 열린책들.
- 이광래, 심명숙(2009). 『미술의 종말과 엔드게임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포스트해체주의까지』. 서울: 미술문화.
- 이종건(1993). 『해체주의 건축의 해체』. 서울: 도서출판 발언.
- 임기택(2014). 『해체주의와 건축이론5』. 서울: 시공문화사.
- 피종호(2005). 『해체미학 니체에서 후기구조주의까지』. 서울: 도서출판 뿌리와이파리.
- 실버만 휴 J.(1993). 『텍스트성·철학·예술 -해석학과 해체주의 사이』. 윤병호(역). 서울: 소명출판. 2009.
- Sturman Janet(2019). *The Sag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usic and Culture*.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공혜영(2007). 컨템포러리 무용에 나타난 해체주의 경향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나훈(2009). 한국 현대춤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제8회 평론가가 뽑은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을 중심으로 -. 『무용예술학연구』, 27: 73-93.
- 이지원(2014). 컨템포러리 댄스에 나타난 「메데아 Medea」의 재현과 표현.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2: 155-176.
- 이지희(2020). 현대 춤의 기호학적 특성 연구 : 퍼스기호학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수진(2019). 드미트리 파파이오아누의 작품「2」에 나타난 루키즘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영현(2019). 디미트리스 파파이오아누 작품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신체 조형성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76: 1-14.
- 유주현(2017. 9. 24.). “아테네 개막식, 서울 올림픽 ‘굴렁쇠’에서 배웠죠”. 『중앙일보』, 550호 8면.
- Lemarchand Andrey(2019. 2. 21.). ‘New Piece I: Since She’, *Tanztheater Wuppertal Pinal Bausch-Sadler’s Wells*. The Strand Magazine, <<https://www.thestrandmagazine.com/single-post/2019/02/20/New-Piece-I-Since-She-Papaioannou-Tanztheater-Wuppertal---Sadlers-Wells>, 2020. 5. 10.>.
- Teatro Municipal do Porto Rivoli Campo Alegre 홈페이지. <<https://www.teatromunicipaldoporto.pt/en/programa/dimitris-papaioannou-gr-the-great-tamer/>, 2020. 5. 10.>.
- OportBLOG 홈페이지. <<https://oportoblog.com/things-to-do-in-porto/porto-march-events-youll-wish-you-knew-about/>, 2020. 5. 10.>.

논문투고일 2020. 5. 15.

심사일 2020. 5. 22.

심사완료일 2020. 6. 6.

## A Study on Deconstructive Elements in Dimitris Papaioannou's Works

– Focusing on *Nowhere*, *Primal Matter*, *The Great Tamer* –

Ahn, Hyunmin\* · Cho, Eunsook\*\*

Ph. D. Student, Dept. of Performing Arts, Chung Ang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Dance, Chung 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recent contemporary dance works of Dimitris Papaioannou are influenced by deconstruction. Prior to the analysis of his works, the authors articulate notions and traits of deconstruction based on other scholarly papers, books and videos. The objects of analysis are the three pieces of Dimitris Papaioannou: *Nowhere*(2009), *Primal Matter*(2012), *The Great Tamer*(2017). *Nowhere* disconnects the space of the stage using the stage settings and props. *Primal Matter* shows deconstruction of gender using dancers' body parts. *The Great Tamer* makes entirely new images through separating body, stage settings and props. Overall, Papaioannou's works serve as examples of how the idea of deconstruction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contemporary dance pieces, which offer a platform for diverse interpretations of art pieces.

**Keywords:** Dimitris Papaioannou(디미트리스 파파이오아누), Deconstruction(해체), Movements(움직임), Dance(무용), Expression(표현)